



2011학년도

가 정 통 신 문

유행성 눈병 예방 안내문

▣ 유행성 눈병이란?

유행성각·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(일명 아폴로눈병)의 2종이 있으며, 전염력이 매우 빠르고 강한 질환입니다.

◆ 유행성 각·결막염이란?

○ 전파경로 : 눈의 각막과 결막에 발생하는 염증으로 보통 감염자의 눈물, 눈곱 등에 있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눈병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및 환자가 사용한 물건(세면도구)을 통해 감염됨

○ 잠복기 : 약 5일~12일 정도

○ 증상

- 보통 양쪽 눈에 발병하나 한쪽만 생기기도 하며, 양쪽 눈에 발병한 경우 대개 먼저 발병한 눈의 증상이 더 심함
- 본인인 느낄 수 있는 자각증상으로 충혈, 중등도의 통증, 눈물 및 눈곱, 이물감(눈에 무엇이 들어있는 느낌), 눈물 흘림 등이 있고,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에는 충혈, 결막부종, 여포, 눈꺼풀 종창(부어오름)등이 있음
- 어린이들에게서는 두통, 오한, 인후통, 설사가 동반되기도 함
- 대개 3~4주간 지속되며 어린이의 경우 더욱 심하게 앓아 각막표면 상피세포의 손상이 생기기도 함

○ 치료 및 관리

- 2차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의사 처방에 따라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제의 안약 투여합니다.
- 안대를 하는 경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고, 눈 위에 냉찜질을 합니다.
- 감염 후 약 4일 동안은 다른 사람과 수건, 세면도구 등을 따로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환자는 수영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.
- 락스나 알콜을 묻힌 깨끗한 천으로 문 손잡이 등을 자주 닦습니다.



◆ 급성출혈성결막염(아폴로눈병)이란?

○ 엔테로바이러스, 콕사키바이러스 등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눈의 분비물에 의한 직·간접 접촉이나 분변, 호흡기분비물에 의해 전염됩니다. 짧은 잠복기(8시간~2일)와 짧은 경과기간(5~7일)을 가지는 것이 유행성 각·결막염과 다른 점이며 갑작스런 충혈 및 통증 등과 함께 혈흔이 보이는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.

▣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

- 유행성 눈병 환자와의 접촉을 삼가 하여야 합니다.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반드시 수건과 세면도구 등을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.
- 외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손으로 얼굴, 특히 눈 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.
- 눈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 병·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
- 유행 시 수영장, 목욕탕 등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합니다. 과로를 피하며 개인위생을 청결히 합니다.

2011년 10월 31일

정읍여자고등학교장